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오스트레일리아

귀국보고서

(2013. 1. 9 ~ 1. 14 : 4박 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주경님 의원)

목 차

I. 연수 개요	3
1. 연수목적	
2. 연수내용	
3. 연수기간	
4. 연수의원	
II. 연수국 연왕	4
1. 호주	
III. 방문도시 소개 및 연수내용	5
1. 시드니 개요	
2. 연수 내용	
IV. 구정에 반영에 불만한 시책	11
V. 연수를 마치며	14

1.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는 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연수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호주 연수는 우리와는 자연환경과 산업구조 및 문화적 토양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관광 정책, 지방의회의 운영 현황, 복지기관의 운영 실태, 문화유적지와 지역환경 관리 방식 등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2. 연수 내용

- 친환경적 산업(농업, 관광) 및 보존 방향
- 사회복지 정책 및 복지시설 운영 현황
-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화 관리 실태
- 지역 환경 구축 및 관리 실태 등

3. 연수 기간

- 2013. 1. 9 ~ 1. 14(4박 6일)

4. 연수의원 명단

소 속	성 명	비 고
계	1명	
사회도시위원회	주 경 님	

II. 연수국 연왕

1. 호주

- 면적은 768만 6,850 km² (한반도의 35배), 인구는 약 2,286만 명,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캔버라이다.
-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정치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형태이다.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이, 주 정부는 6개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인 반면 인구밀도(3명/km²)는 가장 낮다. 인구 구성은 유럽계가 92 %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계 7 %, 원주민 어보리진이 1 %를 차지하고 있다.
- 호주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다. 대륙 중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 기후의 사막으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지만, 국토의 3분의 1은 열대성 기후에 속해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 동부, 남부, 남서부는 연중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은 기후로 비옥한 곡창 지대이며,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이다.
- 호주는 1949년에 북한과 대립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국가로 승인하여 6.25 전쟁 때에는 1만 7,000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1961년 정식 수교를 체결하였고, 1969년의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문화 협정, 어업 협정, 핵 협정 등을 체결하며 교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의 4대 수출 대상 국가 중 하나로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학생에 대한 보호법이 잘되어 있어 유학생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III. 방문도시 소개 및 연수내용

1. 시드니(Sydney) 개요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 위치해 있으며, 시드니 대도시권은 서쪽 블루산맥, 북쪽 호크스베리 강, 남쪽 보터니 만까지 뻗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약 1/4이 몰려 있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이다.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泥岩質)의 파랑상(波浪狀)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 m 전후의 블루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溺谷)을 이루어 포트잭슨 만, 보터니 만 등을 이룬다. 온화한 기후로도 유명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17.6 °C, 가장 더운 달이 21.9 °C, 가장 추운 달이 12.3 °C로 연교차가 적다. 연평균 강수량은 1,205 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 시드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며 시드니대학,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로마 카톨릭 교회, 성공회 교회,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국립미술관, 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다. 또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300 km²)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와 센테니얼 파크 등의 공원·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다. 또한 포트잭슨 만과 남쪽의 보터니 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 시드니 항구는 세계 3대 미항에 들어간다. 항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시드니 내항은 태평양의 바닷물이 한 번 진정이 된 후에 항구로 들어온다. 시드니 내항의 입구쯤 되는 곳에 북쪽의 노스 헤드라는 곳과 남쪽의 시드니 헤드 지역의 두 바위 절벽들이 높은 파도를 막아주어 파도의 기세가 꺾이면서 항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호수처럼 잔잔하게 된다. 시드니 항은 페리를 비롯하여 크루즈, 수상택시, 요트, 카약, 낚시 배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하버브리지의 남동쪽

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드니 심포니오케스트라 및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오페라단·무용단,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며, 도서관 시설도 갖추고 있다. 2007년에 유네스코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페라 하우스 전경>

2. 연수내용

(1) 근로, 복지정책 운영 비교분석<<델타 발전소(Delta electricity)>>

- Delta electricity는 블루마운틴 Lithgow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블루마운틴 지역의 임업 및 광산산업 등에 전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델타 발전소는 정규직 200명과 외주업체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설비는 2년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이곳은 안전을 철칙으로 ‘인간 중심’의 안전한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장이 아닌 사무직 근무자 일지라도 3개월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 직원은 응급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근무체제는 24시간, 2조 2교대,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3일 연속 근무자인 경우 연이어 4일 동안 쉴 수 있다. 이 외에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등 복지 분야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2) 공원관리 및 운영 자료수집<<블루마운틴(Blue Mountain)>>

- 블루마운틴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으로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해발 1100 m의 사암 고원이다. 특유의 푸른빛과 가파른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빚어내는 아름다

운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산 전체가 유칼립투스로 덮여 있어 나무에서 분비된 수액이 오세아니아에 내리쬐는 강한 태양빛과 만나 푸르게 반사되어 블루 마운틴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세 자매봉으로 유명하다. 케이블카나 레일웨이를 이용하거나 직접 걷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을 체험할 수 있다.



(3) Shakti Community Council

◦ 1995년 Farida를 비롯한 이주민 여성들이 호주에 정착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시작했고, 가정폭력문제가 대두되었다. 소수민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Shakti'(힘, 장점)라는 이름으로 오클랜드에서 등록되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고 1998년도에 최초의 피난처가 오클랜드에 설립되었다.



◦ Shakti Community Council 서비스 방법 및 내용

- ▶ 메시지 전달(가정폭력은 절대 안 된다)
- ▶ 24시간 비상전화(한 달에 600여 통 : 75 %가 가정폭력)

- ▶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함.
- ▶ 비밀유지(개인 신상, Safe House), 대변인 서비스 등
- ▶ 비영주권자로 가정폭력으로 곤궁에 처한 여성을 도움
- ▶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Shakti 모델을 아시아, 중동 지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 ▶ 주요 활동으로는 직원들의 능력 신장, 위급-비위급 상황 중재, case work 관리, 그 지역 사회의 여성을 위한 입법화와 안전 가옥 설립 지원 등이다.

(4) 호주의 도서관



- 호주는 학교 수업은 오후 3시면 모두 끝나고 주 5일 수업인데 수업이 끝나면 집 근처에 도서관에서 학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학교 교사가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강남스타일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는 호주 중학생들>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인 인공호수>

(5)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 미술관 (Art gallery of south wales)



시드니 하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 내에 위치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 미술관은 호주의 대표적인 공공 미술관으로써, 호주와 유럽, 아시아 지역의 예술 작품 및 현대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영구 전시관으로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6) 6. 25 참전 유공탑 - SEAWY & CASCADE PARK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박쥐 서식지로 유명)>

(7) UR-3R 쓰레기 처리시설 방문



UR-3R 쓰레기 처리시설장은 Eastern creek에 위치해 있다. 캔터베리 시 쓰레기 처리 담당인 Greelen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견학하였다. 캔터베리 시에서는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겠다. 그 하나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라는 모토로 청소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다. 캔터베리 시에서는 연간 3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이 중 9천 톤 정도는 가정에서 배출되고 연간 약 150불 정도의 비용을 가구별로 부담하고 있다.

시에서는 3가지 종류의 쓰레기통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빨강색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노란색은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녹색은 정원 손질 후 나온 전지류나 풀을 수거한다. 쓰레기처리사업 홍보를 위하여 주민에게 DVD를 제공하고 있다.

하역한 쓰레기는 일차적으로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커다란 두 개의 스크류를 통해 터뜨린 다음 줄곧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단계별 작업공정으로 이동되고 있었다. 바람을 이용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컨베이어벨트라인에서 몇 명이 수작업으로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직접 분류한다. 캔류와 종이류는 별도로 박스 형태로 압착하고 병류는 파쇄하여 재활용하며 여기에서 남은 쓰레기는 별도의 탱크에 들어가 물에 채워져 썩힌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동장 같이 커다란 곳으로 이송되어 장기간의 건조과정을 거친 다음 분쇄되어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최종 처리단계를 거치는데 25 % 정도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200 km 정도 떨어진 폐광에 매립하고 있다.

(8) FTA 관련 농축산 시설 현장 방문

《아그로돔(Agrodome)》

- 아그로돔은 3대에 걸쳐 운영되어 재계 30위에 오를 정도로 내실 있는 목장 및 키위농장으로, 양털 깎기 쇼가 펼쳐지는 테마공원이며 로토루아 시가지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19가지 종류의 양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양견들이 양떼를 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귀여운 양들의 쇼와 양털 깎기 시범, 목양견들의 양몰이 쇼도 펼쳐진다. 소젖을 짜고 새끼 양에게 우유를 먹이는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키위농장을 견학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9) 삼림욕장 운영 및 관리방안 자료수집

《레드우드 그로ув(Redwood Grove)》

- 로토루아 근교에 자리한 뉴질랜드 임업시험장으로 세계 각국의 나무들이 식수되어 있다. 세고비아 나무를 비롯하여 잣나무, 이끼다 소나무 등이 울창하게 자리하고 있어 한낮에도 어두울 정도이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저절로 삼림욕이 되는 쾌적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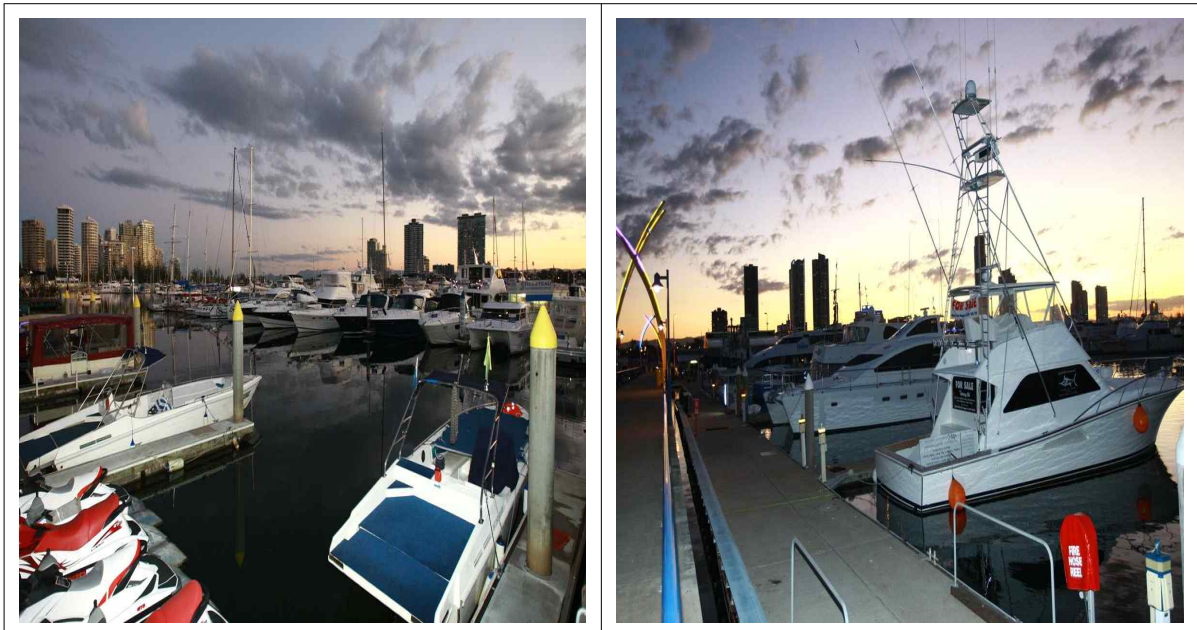
(10) 항만 시설 및 운용, 자연과 현대건물과 어우러진 관광자원 조사

《시드니 항 및 오페라 하우스(The Sydney Opera House)》

- 시드니 항구는 세계 3대 미항에 들어간다. 항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시드니 내항은 태평양의 바닷물이 한 번 진정이 된 후에 항구로 들어온다. 시드니 내항의 입구쯤 되는 곳에 북쪽의 노스 헤드라는 곳과 남

쪽의 시드니 헤드 지역의 두 바위 절벽들이 높은 파도를 막아주어 파도의 기세가 꺾이면서 항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호수처럼 잔잔하게 된다. 시드니 항은 페리를 비롯하여 크루즈, 수상택시, 요트, 카약, 낚시 배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하버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오페라단·무용단,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며, 도서관 시설도 갖추고 있다. 2007년에 유네스코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골드코스트 선착장>

IV. 지역발전엔 반영에 불만한 시책

1.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개발 및 환경 보존

- 호주의 지역경관은 산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이 초지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농축임산업이다. 우리가 방문한 아그로돔(Agrodome, 목장)과 레드우드 그로우브(Redwood Grove, 임업시험장내 삼림욕장)는 이러한 산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그로돔은 다양한 양과 소 및 조류 등을 키우면서 이러한 전 과정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놓은 테마공원(기업)이며, 레드우드 그로우브(Redwood Grove, 임업시험장내 삼림욕장)는 뉴질랜드 고유의 나무 등 다양한 품종들과 식물들로 가득 찬 수목원이다. 전자는 재계 30위에 들어갈 정도로 3대째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며, 후자는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보와 조깅으로 삼림욕을 즐기는 공적 공간이었다. 아울러 호주의 블루마운틴(Blue Maintain)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고,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경관을 지닌 산악국립공원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이를테면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금당산, 백석산 백마산, 중앙공원 등등 도심에 산재한 청정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 테마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호주 해양관광 자원 활용 실태 및 기반시설

- 호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보트 생산국이며, 보트 등록 대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에 이어 세계 5위
- 호주의 마리나 당 보트 수는 348체 세계1위를 차지하는데 미국(804체) 프랑스(2006체) 등 타 국가 대비 마리나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음

3.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인 근로·복지정책

- 블루마운틴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델타 발전소는 ‘안전을 철칙으로 한 인간 중심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장근무자가 아닐지라도 전 직원이

안전교육 및 응급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강검진 등 복지 분야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여가 생활 및 휴식을 위해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해도 산재사고가 많으면 타 사업장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어, 근로자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우리 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사업장에서도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직원의 안전이 기업의 이익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자연+전통+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화 창출

- 우리가 방문한 로토루아의 ‘미타이 마오리 민속촌’, 시드니의 ‘시드니 항’과 ‘오페라 하우스’는 한마디로 역사적 전통속의 자원, 자연적인 바다(항구), 지역 여가의 특성(요트) 등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미타이 마오리 민속촌’은 주변에 온천과 간헐천이 생생하게 많이 분포되어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신기한 전경을 이루고 있으며, 마오리족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열로 찌서 만드는 전통찜 음식 ‘항’ 등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시드니의 ‘시드니 항’과 ‘오페라 하우스’는 아름다운 야경과 같이 자연적인 바다를 현대식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세계 3대 미항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을 자연+전통+현대가 조화롭고 특색 있게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V. 연수를 마치며

- 본 의원이 방문한 호주는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천혜의 자연자원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땅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넓은 면적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공기, 풍부한 농축임산 자원 등을 물려받아 가꾸고 보전하는 친환경 선진국이었다.
- 이번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한 결과의 산물들의 일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였다. 그 결과물은 앞서 제시한 「벤치마킹할 요소(사항)」이다. 이는
 1. ‘천연자원+스토리텔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화, 일일관광객 제한하여 자연환경 훼손 방지
 2.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개발 및 환경 보존
 3.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인 근로 복지정책
 4. 자연+전통+현대가 아우러진 관광자원화 창출 등이다.
 5. 호주 골드코스트의 고품격 마리나 등 기반시설을 견학으로 광주 서구는 비록 호주처럼 바다는 없지만 도심에 자리한 금당산과 운천호수, 풍암호수, 전평제 호수 등이 있으니 호수 주변을 수요자 중심의 주민쉼터, 더 나아가 관광 상품화 및 아름다운 호수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끝으로 이번 연수를 나름대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6일간의 짧은 일정 등의 한계 속에서도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